

濕痰에 對한 枇杷葉의 活用 研究

張 冕 株
(서울 · 回春韓藥房)

• 緒 論

韓醫學은 悠久한 歷史를 지니고 있으며 奧妙한 眞理를 內包하였다. 距今 二千二百餘年 前後인 先漢 中葉末 時代에 皇帝와 岐伯의 問答으로 成文된 黃帝內經素問에 이어 其後 百餘年 사이 本草학이 創始되고 後漢末 壹仟七百餘年前 聖醫 張仲景이 各證의 處方을 構成하였으며 또한 그후 唐, 宋, 金, 元, 明 時代의 壹仟四百餘年 間의 흐르는 사이 先賢名醫에 依하여 더욱 多數의 經驗 方劑가 編成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要求된다.

• 本 論

濕痰症은 그 原因이 多角的으로 檢討된다

1. 黃帝內經 宣明五氣篇 五要(오)論에 脾는 濕을 싫어한다 하였으니 此에 脾胃가 濕하다 함은 脾胃 自體가 過濕하여 傳化作用 卽 消導力活인 飲食物의 消化와 水分의 排導作用이 不能함을 말하는 것이다

2. 東醫寶鑑 濕門에는 濕은 곧 水氣라 濕이 各 장부에 在한즉 濁하여져서 大便이 濡泄하고 小便이 反삼하며 或 脹滿한다고 하였으니 此는 人體 生理上 適量의 濕度를 維持 하여야 하는데 過濕으로 自然 장부는 溫氣를 喪失하고 寒冷하여져니 大便은 濡濕하게 하고 小便은 反對로 갈갈하여 通滑치 못하니 腹部는 이어서 脹滿 하게 되는 것이다

3. 痰飲論에는 朱丹溪 이르되 痰은 津液이 熱熏으로 因하여 濁成한다 하였으니 津液은 元호르몬을 指稱하나 이곳에는 唾液과 水分을 意味한 것 같다 이는 곧 咽喉에서 心下사이에 上焦의 熱로 口燥咽乾하여 濕液이 濁한 덩어리로 成痰함은 우리가 口外로 吐해내는 異物質인 가래를 말함이니 丹溪의 此處에 말한 痰은 腹部의 不必要한 濕痰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학 술

4. 또 이어 次는 卽水인데 脾가 濕한 故로 먹는 水分이 能히 傳化치 못하여 或은 心下에 滯하고 或은 脇間에 머물어 此로 因하여 疾病을 이룬다고 하며 古方에 飲이라 云함이 今人의 痰이니 그 實은 同一한 症이라고 하였고, 痰飲諸論에 痰飲症이 生하게 되면 胸滿食減이라 하였다. 前者에 水를 傳化치 못하는 脾胃가 機能을 喪失하여 心下나 脇間에 過濕으로 胃臟이 比滿하거나 肝臟이 浮腫을 이르킴이요 后者는 比滿하게 되면 胃部가 팽만하여 空腹感을 잃게 되니 自然 進食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5 王隱君 痰論에는 痰飲症이 不一 하여 眩暈 目痛 耳鳴 氣 吞酸 雜 嘔吐 心下如冰 心頭冷痛 內外疾病이 非正 百端이요 皆痰의 所致라고 하였는데 劉宗厚는 王氏의 論함에 사람의 모든 疾病이 다 痰으로 因하여 生하다함은 前人의 發見치 못한 處를 論함이니 可히 痰의 情狀을 深奧하게 識得함이라 하였으니 王隱君의 痰論은 腹部의 濕痰症뿐만 아니라 그로 因하여 全身에 波及되는 濕病을 들어 四肢에 風이 生하고 齒은이 부으며 肩背가 疼痛하고 全力이 蟲行한것 같이 숨을 거르며 夢中에 鬼神을 보게되고 口와 舌이 헐며 가슴이 驚하고 精神을 잃고 狂氣하며 中風으로 麻痺되고 다리가 부어 脚氣하며 婦人은 經不順 하며 小兒는 驚癇함이다. 濕痰病의 原因이라 하였고 劉氏의 致辭에는 일찌기 諸家들도 痰飲의 論함이 이간이 詳細치 못하였는데 오직 王隱君은 이와같이 仔祥하다고 續言하였다.

6. 張沖景은 飲症이 有八하니 留飲 癖飲 痰飲 溢飲 流飲 縣飲 支飲 伏飲인데 다 飲酒나 冒寒이나 飲水過多의 所致라 하였다 留飲은 물이 心下에 머물어 呼吸이 가쁘고 渴症이 나며 四肢의 마디 마디가 疼痛하고 癖飲은 水分이 兩脇에 있고 動하면 水音이 나며 痰飲은 肥滿者가 漸漸 瘦瘠하고 물이 腸間에 머물어 소리나며 或은 붓기도 하고 溢飲은 四肢에 ㅍ이 없이 무겁고 아프며 流하는 것처럼 ㅍㅍ 소리나며 懸飲은 水分이 脇下에 머물면서 기침하고 支飲은 기침이 逆上하여 숨이 차고 其形이 부으며 伏飲은 胸膈間에 痰이 차며 寒熱往來하며 喘咳하고 몸이 흔들흔들하는 것이라 以上과 같이 東醫寶鑑에 八飲症을 說明하였다

7. 壽世保元에는 痰者는 生於脾胃한다. 故로 脾胃之氣가 旺盛하면 飲食이 쉽게 消化되니 어찌 痰이 生할 수 있는가 或 食后에 腦氣를 傷하거나 놀래거나 風邪에 부딪쳐 飲食의 消導가 能히 傳化치 못하였을時 痰飲이 이루어지고 經絡 장부 一身上下에 流入하여 百病으로 變化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胃氣가 强하면 濕痰이 不生하고 胃氣 虛하여 過濕할時에 神經을 過敏하게 되거나 강한 風形를 맞거나 할때 濕痰이 全身에 生하기 쉽다는 것이다.

8. 壽世保元 嘔吐門에 嘔吐者는 飲食이 入胃한 后 다시 逆出함이라 有聲無物이 謂之吐라 즉 嘔吐는 有聲有物이요 胃氣 傷하고 中氣不足하면 生嘔吐하며 外感風形에도 內傷飲食에도 有氣逆時에도 嘔吐가 發生한다 하였다 卽 嘔吐는 소리내면서 飲食物을 逆出 하는 것이니 感

氣에도 생활 수 있고 飲食物이 胃를 傷케 하여 發生하기도 하는데 此는 今日의 부패성 飲食物로 起因하는 食中毒이요 氣逆으로 發生한다함은 筆者의 主論하고자 하는 胃의 過濕으로 惡心하게 되어 發生하는 嘔吐이다

9. 나의 究明하고자 하는 數三意見

以上の 黃帝內經, 東醫寶鑑, 張仲景, 朱丹溪 王隱君 醫學入門, 壽世保元の 諸濕痰 嘔吐論을 觀察하여 봄이니 其中 丹溪의 痰論은 熱熏으로 濁成한다함은 實際 臨床上 上衝하는 熱보다 冷寒에 依하여 痰이 多生한다고 보아지니 一例로 長期 飲酒者의 境遇 漸次 體冷하여 咽中에 痰生함이 多함을 體驗하며 又一例는 腎(副腎)虛로 精浮爲痰이라 하여 精水 卽 호르몬의 平衡을 喪失하게 되면 곧 痰過色으로 體虛 하여지고 冷氣 發動으로 咽中에 痰盛하게 되는 것을 자주 經驗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 飲論에 脾胃가 虛虧하면 먹는 水分을 不能傳化라함도 亦是 臨床上 胃虛를 일으키기 移轉에 腎(부신)虛하여 신장의 排尿作用의 缺陷으로 胃內의 水分을 導下치 못하여 胃內渟水가 더 한층 多發하게 되니 補腎方劑의 六味丸의 方中에 澤瀉 牧丹의 眞意를 可히 吟味할 수 있는 것이다.

× 以下는 外國人을 爲하여 六味方을 別記함. 熟地黃, 山茱萸 白茯苓, 山藥, 牧丹, 澤瀉, 此處方 內容을 살펴보면 熟地黃으로 以補精水하고 山茱萸로 以收陰游하며 山藥으로 以補水源하고 白茯苓으로 以慘胃水하며 牧丹으로 以清虛火하고 澤瀉로로 以疏水滯라 다시 바꾸어 말하면 精水不足을 補하는 熟地黃, 山茱萸, 山藥 外에 水分을 瀉하는 白茯苓, 澤瀉와 驅瘀清火하는 牧丹이 들어 있으니 補精水의 處方에 排水清火藥이 構成됨은 腎(부신)虛로 因하여 生하는 水滿 等の 濕症을 治하기 爲하여 澤瀉, 牧丹이 들어있는 것이다. 以上の 諸濕痰症을 간단히 간추리면 腹部에 나타나는 水滿, 雜煩胃, 嘔吐등이다. 그 治療는 燥濕爲主인 半夏, 陳皮의 二陣主義 處方이나 變方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醫學入門이나 壽世保元 嘔吐門에 枇杷葉의 處方이 數三例 有하다.

① 加味橘皮竹茹湯

陳皮, 竹茹, 赤茯苓, 枇杷葉, 麥門冬, 半夏, 各 4, 人蔘, 甘草, 各 2g

② 清胃保中湯

黃芩 梔子 藿香 黃連 白朮 枇杷葉 各 4g, 白茯苓, 陳皮, 半夏, 各 2.4g, 甘草 0.8g

此方은 有熱嘔吐를 治하고

③ 藿香, 厚朴, 白朮, 白茯苓, 陳皮 各 4g, 砂仁 2g, 枇杷葉 三片 甘草 人 2g, 生干 4g

此方은 方名없이 鞭滿嘔吐를 治한다 하였다 以上 枇杷葉은 嘔吐處方에만 記載되어 있고 他濕門處方에는 筆者의 薄識不足으로 아직 살펴 發見치 못하였다. 枇杷葉은 止嘔作用外에

□ 학 술

여러가지 作用이 있다.

本草綱目에는 枇杷葉의 氣味는 苦平無毒하고 功用主治는 止嘔 降氣 和胃 清熱이며 諸法에 는 治胃時는 干汁으로 塗침한다 하였고 中藥大辭典에는 性味는 苦涼하고 歸經은 入肺胃經하 며 功用主治는 清肺和胃 降氣化痰 胃熱嘔吐라 하였으니 곧 筆者가 本題에 主論 하고자함이 降氣化痰作用이다. 腹部의 諸濕痰症인 水瀰 疝積 嘔吐에는 枇杷葉의 降氣化痰의 作用功能은 丁香等의 他藥性의 힘이 따를 수 없음을 筆者가 約20年間 임상課程에서 실질적으로 어김없 는 效率을 여기에 力說하고자 하는바이다.

• 結 論

따라서 諸家の 論述을 살펴보면 中藥大辭典 枇杷葉이 肺胃의 病을 治함은 그 降氣의 功能을 取함이라 氣가 下한즉 火도 降하고 痰도 順하여지며 逆한 氣도 不逆하게 되며 嘔한 것도 不嘔케되며 渴症도 不渴하고 咳者도 不咳 한다하였고 本草匯言에는 枇杷葉은 安胃氣 潤心肺 養肝胃의 藥이라 하였는데 沈孔庭이 解曰 嘔呃反胃하여 吐食不止함을 治함은 安胃氣하는 功이요 氣逆痰盛하여 咳未寧을 治함은 潤肺氣하는 功이요 虛火燔灼하고 舌乾口燥함을 治함은 養腎氣의 功이라 하였다. 以上 諸家論述처럼 枇杷葉의 功은 臨床上 至效 있음을 體得하였 고 筆者는 上の 論述을 接하기 以前(中藥大辭典)은 一九七七年 七月 上海初版 一九七八年 十月香港一版 大韓民國에는 一九七九年 香港版入荷) 臨床體驗을 得한 后 새로이 諸加一層 價値있음을 實感하였다. 끝으로 筆者의 淺見博識한 所致로 廣範圍하게 典籍을 살피지 못한 不足한 推究의 小考을 述하면서 부끄럼을 禁치 못하니 諸醫學者의 研究途上에 一片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하면서 끝을 맺는다.